

9

INT. 부화장 감별실 - 낮

9

병아리들이 겹겹이 쌓인 통에 담겨 온기를 잃어 아 웅기증기 모여 있다. 뚫어지게 바라보는 데이빗.

HAYASHI

[안녕하세요!]

모니카와 제이콥을 다른 7명의 동양 일꾼들에게 소개하는 HAYASHI (60대, 일본인 "하야시") 쪽을 보는 데이빗. 꼭 신혼부부를 소개하는 풍경 같다.

HAYASHI (CONT'D)

[이쪽은 이제이콥 과 이모니카.]

공손하게 허리 굽혀 인사하는 모니카와 제이콥. 박수를 치는 일꾼들.

HAYASHI (CONT'D)

[이 선생님은 전문 병아리 감별사셔. 시애틀과 캘리포니아에서도 일하셨어요.]

베트남 노동자인 MR. NGO (45세 "응고")가 손을 든다.

MR. NGO

[근데 아칸소 주로 왔다고 미친 거야?]

웃음을 터뜨리는 다른 노동자들. 하지만 웃지 않는 제이콥과 모니카.

작업대로 모니카와 제이콥을 안내하는 하야시. 오 여사(40-50대)가 목례를 건넨다.

오 여사

안녕하세요.

모니카

어머, 안녕하세요! 한국분도 계시네요!

오 여사

[네, 몇 명 있어요.]

모니카

베트남 사람들만 있다고 들었거든요.

오 여사

아니에요. 한국 사람들도 조금 있어요.페이엇빌이 더 크긴 한데, 한국 사람들은 애들 교육 때문에 다 로저스에 살아요. 그쪽도 거기 살죠?

Start Sc. 1

모니카
아... 아니요. “홀트” 라는 동네에 살아요.

오 여사
한번도 들어본 적 없는 동네인데...

모니카
한 시간 정도 거리에 있는 시골이에요.

End Sc. 1

오 여사
아니, 한국분이 왜 거기 살아요?

자신도 모르는 모니카. 한편:

10

INT. 부화장 휴게실

10

두 권의 커다란 백과 사전을 꺼내 앤.

[내가 “v” 쪽 읽을게, 너가 “l” 읽어.]

데이빗이 책을 읽는다. 곧 지루해한다.

11

INT. 부화장 감별실

11

빠른 속도로 암컷과 수컷 병아리 구별해내는 제이콥.

복슬복슬한 노란색 카드를 분배하며 포커 딜러 같다.

그보다 속도가 느린, 아직 배워가 단계의 모니카. 두 사람을 지켜보는 오 여사.

Start Sc. 2

오 여사
여태 이 선생님 처럼 빠른 사람을 본 적이 없어.
캘리포니아에서 돈 많이 벌었겠는데.

모니카
그렇긴 한데, 저는 거기서 일 할 만큼은 손이 빠르지
않아서...

오 여사
일한지 얼마나 됐는데요?

모니카
6개월 정도 됐어요.

오 여사
에이 어쨌든, 여기서는 충분히 빠른 거야. 잘 왔어요.

End Sc. 2

이콥
[할머니 냄새라고
가서 회초리 갖고

멈춰서 움찔하는 데이빗.

이콥 (CONT'D)
회초리는 싫어? 할머니 앞에서 행동 똑바로 해...
이제 가서 자.

베개를 들고 나가는 데이빗. 제이이 이 나서준 것이 고마운 모니카.

52

INT. 데이빗 방 - 밤

52

코를 막으며 잠들지 못하고 누워 있는 데이빗. 코를 고는 순자를 바라본다. 코 고는 소리는 계속 커진다.

코를 막던 손을 귀로 가져가 귀를 막는다.

53

INT. 부회장 휴게실 - 아침

53

작업 가운을 입고 작업 준비를 하고 있는 감별사들. 고춧가루 봉지 냄새를 맡는 오 여사. 모니카의 선물이다.

Start Sc. 3

오 여사
이게 뭐가 다른데요?

모니카
한국에서 온 거예요. 훨씬 좋아요.

오 여사
아, 그래? 고마워요... 근데 달라스엔 아직 안가봤나봐?
거기에 이런 거 있던데.

End Sc. 3

54

INT. 이동 주택 - 낮

54

깡통에 들어있는 강렬한 붉은색의 스텐트 파스타를 냄비에 붓고 젓는 앤.

흰색 치즈 한 장을 바나나에 감뎠다. 먹는 데이빗.

앤
맛있겠다. 할머니 먹어봐도 돼?

안 돼요 -라는 제스처로 등을 돌려 데이빗. 마운틴 듀 한 잔을 마시려고 잔에 담은 앤.

데이빗
[나도 마실래.]

순자 (CONT'D)
지랄하고 자빠졌네. 네가 비를 먹었다고 이긴 줄 아냐?
자 여기 광이 나가! 다!

내리치는 순자. 시선을 교환하는 앤. 데이빗, 이게 대체 뭐야?

순자 (CONT'D)
빨리, 빨리. 계속.

56 INT. 부화장 - 낮 56

평소대로 빠른 속도로 병아리를 감별하고 있는 제이콥.
신중하고 천천히 감별하는 모니카. 마지막으로 감별한 병아리를 다시 확인하며 체크하는 모니카.
모니카, 일어나서 통을 치운다.
일하고 있는 다른 감별사들. 램프 빛에 마스크가 반사되고, 닭털 먼지가 주변에 부유하고 있다.

Start Sc. 4

모니카
(오여사에게)
근데 왜 아무도 한국 교회를 만들 생각은 안했을까요?

오 여사
15명으로 교회를 열라고?

모니카
괜찮을 텐데요, 한국 애들끼리 같이 놀 수도 있고.

오 여사
여기 사는 한국 사람들, 다 이유가 있어서 도시를
떠난거라고... 한국 교회에서 벗어나려고.

End Sc. 4

반쯤 농담을 하는 오여사, 맞춰주는 모니카. 예의 바르게 웃는다.

모니카를 지켜보는 제이콥. 미소가 벌어지는 모니카의 얼굴.

57 EXT. 농장 - 낮 57

함께 걷고 있는 데이빗과 앤. 순자가 앞서가고 있다. 셀 수 없이 많은 메뚜기가 뛰어다닌다.
데이빗에게 속삭이는 앤.

앤
[할머니 글 못 읽는 거 알았어?]

데이빗
[할머니 같지가 않아요.]